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9. 14.(금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해안권 발전지원과	담당자	· 과장 고관규, 사무관 박주영 · ☎ (044)201-4553, 201-4561
보 도 일 시		2018년 9월 1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 미술관·공방·숙박 및 체험시설 등 유치 예정...10월 중 투자 설명회

-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‘남해안 오션뷰(Ocean View) 명소’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*를 발굴했다.
 - * 전남(고흥 2, 여수 1, 광양 1), 경남(남해 2, 통영 1, 거제 4)
 -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,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.
 - * 잠재투자자 리스트 840여 개 업체 중 123개 업체에서 관심 표명
 -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(미술관, 전시관, 공방, 체험시설 등)과 전망카페, 소규모 상업·숙박·테마시설 등 다양하다.
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**투자의향 조사**를 지속 하는 한편,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 하거나 필요한 경우 **방문 설명회** 할 계획이다.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
-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'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'의 일환이다.
- 지난 7월에 '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'을 선정·발표*한 바 있으며,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**전망 공간**(건축가, 설치미술가 등 참여)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.
 - *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·군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조망점을 골라 올 휴가철에 가 볼만한 곳으로 '남해안 오션뷰(Ocean View) 명소 20선'을 선정·발표 (국토교통부 누리집 (www.molit.go.kr), 7.22자 보도자료 참고)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해안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 투자유치를 통해 **경관 감상형 관광휴양·체험시설**이 조성될 경우, 예술적 전망 공간과 결합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안권발전지원과 박주영 사무관(☎ 044-201-45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